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아비투스 형성과정 탐색

오병돈^{1*}, 유영설¹
¹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The Search of the Habitus Formation Process in Professional Football Club Supporters

Byoung-Don Oh^{1*} and Young-Seol Yu¹

¹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hungnam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를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서포터즈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하위문화의 작동방식과 내면으로의 본질적인 접근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는 어떠한 활동과 과정을 거치면서 서포터즈의 아비투스로 발전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목적 표집 중 강도표집과 준거표집을 통해 서포터즈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이며, 서포터즈에서 임원활동을 했던 서포터 중에서 6명의 서포터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비참여관찰을 병행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넷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부터 자료를 발췌하여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프로축구 서포터즈가 일반관중과의 문화적 구별짓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는 열광적인 현장응원과 소모임 문화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가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 서포터즈만의 아비투스로 발전되어 일반관중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ubculture of professional football supporters with a view of Bourdieu's Habitus theory. What sorts of mechanism were worked when supporters formed their Habitus. The methods adopted in the article was qualitative. The qualitative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their fandom was gleaned from 'virtual participant observation' or 'interviewing' of professional football fans that participated in discussions on the internet and participant observation of professional fans. The intensity and criteria sampling method was used to select 6 supporte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supporting activities for more than five years and played crucial roles in running their organization as officials. The textual analysis which is consisting of translation, coding, and processing was used to mean the identification and exegesis of contextualization cues that make a text meaningful to the professional football supporters. an intended audi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at (1) the subculture variety of activities for players and coaching staffs were the fundamental factors when supporters formed their subculture. (2) the professional supporters became habitus through the progressively development of subcultures such as enthusiastic supporters, small meetings, and events relating to soccer players.

Key Words : Habitus, Professional Football Club Supporters, Subculture

1. 서론

관람문화의 하위문화로서 프로축구 서포터즈 문화를

살펴보면, 같은 경기장에서 동일한 경기를 관람하는 일반 관중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프로축구 서포터즈는 하나의 팀만을 응원하고, 특정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Corresponding Author : Byoung-Don Oh(Chungnam Univ.)

Tel: +82-041-850-1670 email: shootdori5@naver.com

Received April 8, 2013

Revised August 6, 2013

Accepted August 7, 2013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팀을 응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이나 같은 색의 옷을 입어, 일체감을 과시하기도 하고 선수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도 한다. 서포터즈는 경기에 직접 참가하는 선수들처럼 경기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경기 내내 선수 못지않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며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2].

프로축구 관람문화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일반관중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두 가지 문화로 나누어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 전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을 찾아오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응원을 해왔던 기존의 프로축구 서포터즈와,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계기로 즉흥적인 축구열기에 편승해 경기장을 찾아온 일반관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같은 지역의 동일한 팀을 응원하더라도 응원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축구장의 응원문화와 관련하여 강진숙[1]은 팬덤문화의 생산과 아비투스 연구에서 “팬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 산업자들과 달리 오히려 돈을 쓰면서 팬클럽 내의 텍스트를 생산하며, 대중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식문화와 다르게 팬문화는 자기 텍스트를 그들 공동체 밖으로 유통시키려 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팬덤이 갖고 있는 구별짓기의 속성이고, 팬덤의 안과 밖을 명확히 경계지으면서 밖에 있는 ‘공식문화자본’과 차별화시키는 것”(p. 102)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서포터즈의 문화 자체가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특정한 문화자본과 아비투스(Habitus)를 체화(體化)함으로써 구별짓기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Bourdieu[10]는 문화자본을 체화된 상태, 객관화된 상태, 제도화된 상태로 분류하면서 계급의 사회적 구별짓기라는 문화자본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화의 과정에서 습득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향과 아비투스’의 의미를 지닌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라고 설명하였다[3]. 또한 아비투스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개인이 획득하는 영구적인 하나의 성향체계이고, 성향은 각자의 객관적인 생존조건에 의해 개인에게 내면화된 태도, 지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경향으로서 행동과 지각 그리고 사고의 무의식적 원인으로 기능한다. 여기에서 내면화는 습득된 행동과 가치들이 자명한 것, 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본능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하면서 사회화의 핵심적인메커니즘을 구성한다[9].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서포터즈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팬덤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가 학

적 입장에서 서포터즈 문화 자체 보다는 유입 및 확산과정에 관심을 두어 왔다. 하지만 서포터즈 하위문화의 작동방식과 내면으로의 본질적인 접근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비투스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는 무엇인가?

둘째,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는 어떠한 활동과 과정을 경험하면서 서포터즈의 아비투스로 발전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티즌의 서포터인 퍼플크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전시티즌의 서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대전시티즌의 서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는 이유는 충청도 사람들은 ‘멍청도’ 혹은 ‘하바지’와 같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며,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고, 또한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데 반하여[7], 이 지역의 서포터즈는 대전을 ‘축구특별시’라는 닉네임을 얻게 하였으며, 타 지역에 있는 서포터즈와 다를 바 없이 열광적인 응원문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서포터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일 것, 그리고 서포터 연합 모임(퍼플크루)이나 소모임에서 임원경험이 있을 것으로 정하였다. 임원경험을 준거로서 선택한 이유는 서포터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중 적극적 참여단계를 서포터즈에서의 임원활동으로 가정했기 때문이고, 서포터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많은 서포터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러한 준거표집을 통해 1차적으로 선정된 서포터들을 대상으로 풍부한 사례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강도표집의 절차를 거친 후 Table 1과 같이 최종적으로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research participant

No	Name	Sex	Age	Job	Officer of Supporters
1	S. R. Han	mail	30s late	office worker	website manager of Deep Purple
2	M. J. Choi	female	30s mid	hosewife	vice-president of Deep Purple
3	M. J. Choi	female	30s mid	hosewife	secretaries of Deep Purple
4	E. S. Jeong	female	20s mid	college student	visit team leader of Purplecrew
5	J. S. Ryu	mail	30s early	freelancer	president of Purplecrew, main leading
6	N. G. Kim	mail	50s early	office worker	secretary-general of Purplecrew

2.2 자료수집 방법

2.2.1 심층면담

면담은 기본적으로 반(半)구조화된 형식을 적용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07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대전시티즌 서포터즈의 소모임 중 30세 이상만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딥퍼플(Deep Purple) 회원 중 매주 2차례 축구모임(Deep Purple Football Club)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축구경기가 끝난 후 구체적인 질문 또는 범주와 내용만을 결정한 상태에서 비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여 사전 검사(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서포터즈 가입배경, 가입 이후의 단계별 활동내용, 그리고 개인 및 서포터즈로서의 아비투스가 형성되는 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조사는 2007년 7월 중순부터 2008년 4월 말까지 홈경기가 끝나고 뒤풀이 모임을 진행할 때나, 원정경기의 서포팅에 참여하면서 오고 가는 차량 안에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Deep Purple F.C의 축구경기가 끝난 후에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의 구체적인 방법은 녹음(recording)이며, 동시에 현장노트를 이용하여 주요 내용을 메모하였고, 전사 및 면접 기록지 작성 시에는 가명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였다.

2.2.2 관찰

연구자는 2005년에 퍼플크루에 가입한 후, 2007년 시즌에서야 비로소 그들과 함께 서포팅 활동을 하면서 홈경기 뿐만 아니라 원정응원에도 동참하고 축구경기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참여관찰을 하였고, 때로는 서포터석 주변에서 서포터즈가 경기 전·중·후에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경기가 없는 날이나 비시즌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참여관찰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와 보이스트레코더를 이용하였으며, 서포팅 중 응

원하는 소리는 보이스트레코더를 이용하여 녹음한 후 전사의 과정을 거쳐 경기상황에 따라 응원을 어떻게 전개해나가는지 정리하였다. 비참여관찰을 위해서는 디지털 캠코더를 활용하여 경기시간 내내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녹화하였으며, 서포터즈의 응원전개시 특이사항 등을 현장노트에 기록하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2.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수집

우리나라 서포터즈의 특징은 사이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고 주요 활동무대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서포터즈를 관찰하는 가장 좋은 공간이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다[6].

딥퍼플[12]과 퍼플크루[14, 15, 18] 및 그밖의 소모임[11,13,16,17,19]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에는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며, 상황에 따라선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서포터즈의 하위문화와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나 서포터즈 활동 및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2.3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수집한 자료를 전사, 주제별 약호화, 주제의 생성 단계로 구분하여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과정은 전사 작업 단계로서, 연구현장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후속 분석을 위해 컴퓨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자료와 현장노트,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둘째 과정은 주제별 약호화의 개발과 적용단계로서, 이 과정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읽고, 특정 텍스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주제적 용

어를 부여하였다. 주제별 약호화 과정에서 텍스트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축소시키고 분석 대상 자료를 선택하였으며,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의미있는 방식으로 체계화, 재조직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탐구의 과정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은 ‘응원체계 구축’, ‘응원용품 구입 및 자체제작’, ‘홈경기 퍼포먼스’, ‘원정응원(단체관람)’, ‘온라인(On-line) 중심 문화’, ‘취향에 맞는 소모임’, ‘소모임별 활동내용’ 등 총7개로 분석되었다.

셋째 과정은 분석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주제 및 의미 생성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섭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 범주, 의미를 생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는 ‘열광적인 현장응원’, ‘소모임 문화’로 범주화되었다.

2.4 자료의 진실성

자료의 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원 간 검토와 동료 간 협의, 다각도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서로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게 얻은 다양한 정보, 즉 서포터즈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이 10여년이 지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일이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고, 또한 주관적 상황인식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담내용을 그 당시의 신문기사나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의 일관성을 살펴보는 ‘자료원천에 대한 삼각검증’과 그리고 스포츠사회학 전공 박사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 스터디 모임(세미나리움)의 회원들과 연구자를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연구자 삼각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들 간 논의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론과 비교함으로써 자료 해석의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열광적인 현장 응원

프로축구 서포터즈는 골대 뒷좌석에서 열광적인 응원을 하고 있을 때 그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경기장을 떠나서는 서포터즈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선수들과 동일한 복장인 레플리카(replica)를 착용하고, 복장단에 맞춰 점핑하며, 목소리를 크게 내어 구호를 외쳐 홈팀 선수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어 경기력 향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원정팀 선수들에게는 두려움 내지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경기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열광적인 현장응원을 어떻게 진행하

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3.1.1 응원체계 구축

프로축구 서포터즈는 통일된 복장으로 골대 뒤쪽에 자리를 잡고 관람석에 서서 열광적인 응원을 진행한다. 개인이 지지하는 선수의 배번을 마킹하여 팀 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에게도 지지를 표현한다. 특히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응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팀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메인 리딩(main leading)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 메인 리딩은 확성기를 들고 골대 뒷좌석의 첫째 자리에 조그마한 단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경기 시간 내내 진행되고 있는 경기장 안 쪽과 서포터석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경기진행 상황에 따라 응원곡과 구호, 박수 등의 다양한 응원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메인 리딩의 역할에 대하여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이다.

리딩을 하게 되면 경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서포터즈 전체가 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구호를 외치며, 하나된 모습을 보이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리딩은 경기 전체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서포터즈의 응원이 경기 상황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지지하는 팀의 상황이 어떤지 빨리 파악을 해야하고, 그 상황에 맞게 응원곡 제창이나 박수, 구호 등을 외쳐야 하기 때문에 경기장 전체 상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야 해요. 리딩은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류진성-리딩)

이렇게 메인 리딩은 경기장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기장과 서포터석을 주시하면서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서포팅을 주도하여 홈팀 선수들의 투지를 불사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메인 리딩과 더불어 가장 인접한 자리에서 호흡을 맞추며 응원의 전체 흐름을 조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는 소위 ‘탐돌이’가 있다. 탐돌이는 경기 시간 내내 북을 어깨에 메고, 북을 두드리며 복장단을 만들어 내는데, 보통 2-3명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한다. 리딩이 주도하는 대로 응원곡이나 구호의 리듬을 만들어 지지하는 팀 고유의 리듬을 창출하고 있다. 두시간 가까이 북을 맨 채로 두드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가락에 부상이 생길수도 있고, 또한 2-3명이 동시에 같은 리듬을 만들어야 하는데, 엇박자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응원곡을 섭렵하고 있는 서포터한테 탐돌이의 역할이 주어진다.

또한 서포터즈의 응원 방법 중 상대 선수들에게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형 깃발을 흔드는 것이

다. 여러 개의 큰 깃발을 서포터 한 명이 들어서 동일한 형태의 궤적을 만들며 동시에 돌리는데, 이들은 소위 ‘깃돌이’라 불리며, 응원곡을 제창하면서 필요에 따라 각 소모임을 상징하는 깃발을 동시에 흔들면서 최대한의 시각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응원방식의 큰 특징은 경기시간이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경기상황에 맞게 응원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경기시작 및 종료시, 골을 넣거나 아니면 지고 있을 때 등 경기 중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각각 필요한 응원곡이나 구호, 점핑 등을 통해 지지하는 팀의 선수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상대팀 선수들이 거칠고 빠르게 밀고 들어올 때는 저음이나 느린 곡을 불러서 상대 팀 선수들의 움직임에 엿박자 리듬을 태워 기세를 꺾기도 하였다.

이렇듯이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응원체계는 골대 뒷좌석에서 현장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응원곡 및 구호로 전개되어 지지하고 있는 팀의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경기력 향상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서포터즈의 응원에 힘입어 한 발짝이라도 더 뛰었다고 소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응원곡을 제창할 때 서포터즈는 구단이나 선수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갖게 되고, 상대 서포터즈의 목소리 보다 훨씬 크게 불려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서포팅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응원곡 제창에 대한 서포터즈의 진술이다.

응원곡을 힘차게 부르다 보면 정말 내가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히 경기가 시작될 때 부르는 응원곡은 전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내 안에 가득 넘쳐나죠.....중략

경기에서 이기면 우리들이 서포팅을 열심히 해서 이겼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사하러 오는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뿌듯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김남규-퍼플크루 사무국장)

이러한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응원체계는 프로야구나 배구, 농구 등의 치어리더를 동원하는 구단 중심의 응원과는 차원이 다른 프로축구 서포터즈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이처럼 프로축구와 다른 프로 스포츠 종목의 응원체계가 다른 것은 경기 종목의 진행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축구는 45분의 경기시간 내내 플레이가 꾸준히 진행되는 반면, 다른 종목들은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나 작전 타임 등과 같은 잠시 동안의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응원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야구의 응원방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이만형[4]은 “구단 주도의 응원단과는 떨어진 외야쪽

에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선수들을 지지하는 열정적인 서포터즈가 존재하고 활동하면서 과거 일부 축구 서포터즈들이 보여주었던 일탈적이고 부정적인 홀리건의 이미지를 배제하고 다른 팀 서포터즈들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류와 융화, 건전한 여가선용과 새로운 응원문화의 정착 그리고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p. 199)”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프로야구에도 서포터즈가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10여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전해온 프로축구 서포터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1.2 응원용품 구입 및 자체제작

서포터즈가 응원을 전개하면서 필요한 용품들은 구단으로부터 구입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작하고 있다. 레플리카(replica)는 원래 ‘그림·조각 등에서 원작자가 손수 만든 1점 또는 여러 점의 정확한 사본이라는 의미인데,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을 보급형으로 제작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선수들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자 하는 서포터즈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레플리카를 착용하며 선수들과 동일시되고, 선수 및 구단에 대한 애착심이 커져가는 서포터즈의 면담 내용이다.

레플리카를 입고 있으면 마치 내가 선수가 된 듯한 느낌이 짝하게 전해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배번을 그대로 마킹해서 착용을 했어요. 그리고 선수들과 더욱 친해지고 싶어 구단행사 때마다 찾아다니며 레플리카에 대부분 선수들의 싸인을 받아 우리 팀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민정-딤퍼플충무)

머플러는 대부분의 서포터즈가 구입하여 응원곡에 맞추어 머플러를 돌리면서 응원도구로서 서포팅에 활용되며, 또한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이 인사하러 올 때 머플러를 활짝 펴서 우리가 항상 지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포터즈가 레플리카와 머플러를 서포터즈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매 경기마다 응원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팀에 대한 일체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레플리카와 머플러는 일반관중들도 상당수가 구입하여 경기장에서 착용하고 있다. 즉 이제는 일반 관중들에게도 레플리카나 머플러 구입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포터즈는 그 외의 응원도구들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위 서포터즈가 ‘걸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형 현수막은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문구를 써넣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걸게는 서포터즈 현장팀에서 관리를 하는 대표적 성격을 띠는 메인 걸게가 있으며, 각 소모임에서 상징적인 문구를 작성하여 소모임별로 경기전에 걸었다가 경기 종료 후에 바로 떼어내곤 한다. 이 걸게는 서포터즈가 상징적 의미를 담아 그림이나 문구를 표현해 넣는 관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 실제로 그 걸게를 서포팅하면서 잘못하여 불이 붙게 되어 훼손된 것과 원정경기에 다녀오면서 챙겨오지 못해 온라인 상에서 서포터즈끼리 갈등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 전반전이나 후반전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림과 동시에 서포터즈석에서 종이로 만든 꽃가루를 날려 일반관중들한테나 선수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서포터즈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칼이나 가위로 종이를 오려서 직접 만들어오는 응원용품 중 하나이다.

3.1.3 홈경기 퍼포먼스

서포터즈의 응원방법 중 홈경기시 전체관중이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응이 좋은 것이 바로 서포터즈에서 준비한 퍼포먼스이다. 이들 퍼포먼스에는 대표적으로 소위 ‘휴폭’이라 불리는 휴지폭탄이 있다. 우선 휴지폭탄과 같은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선 일주일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일반 두루마리 화장지를 반대로 감아서 던져야 화장지가 잘 퍼지면서 화려한 장관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홈경기 중에서도 보다 의미있고 많은 관중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홈경기를 예상해서 휴폭 퍼포먼스를 기획한다. 휴폭 퍼포먼스 해당 홈경기 일정이 잡히면 바로 인터넷 공지를 통해 일주일 동안의 휴지폭탄 제작기간에 돌입한다. 학교나 직장을 마치고 저녁시간에 서포터즈 사무실에 모여 계속해서 제작을 한다.

처음 준비할 때는 일일이 그 많은 양을 수작업으로 모두 제작을 했었는데, 점차 발전하면서 ‘휴폭 제작기’를 고안하여 비교적 손쉽게 휴지폭탄을 제작해오고 있다. 일반 관중들 모두에게 전달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휴지폭탄을 제작해야 한다. 하지만 휴지폭탄 퍼포먼스가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휴지폭탄을 던지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되지만, 그 휴지들이 경기중인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치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지연이라는 결정적 오점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구단은 벌금을 부여받게 되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퍼포먼스로 전략할 수 있다.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제작한

휴폭 퍼포먼스에 대하여 구단에서 발표한 공지사항을 보면 경기지연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포터즈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회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난 수원전 홈경기에서 퍼플크루 본진에서 대대적인 휴폭 이벤트를 통해 즐기는 응원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여겨 집니다. 허나 그후 TJB 방송국에서 휴폭의 부정적인 응원문화의 하나로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연맹으로부터 경기지연에 대한 구단에 엄중 경고가 있었으며, 구단에서는 공지를 통해 휴폭 이벤트에 대한 지양을 부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 중략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퍼플크루 블로그[15]

이러한 홈경기 퍼포먼스는 서포터즈가 일반관중들과 함께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포팅은 골대 뒷좌석에서 서포터즈끼리 열광적으로 진행하면서 서포터즈와 일반관중들이 함께 할 수 없지만, 휴지폭탄과 같은 퍼포먼스는 일반관중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서포터즈의 응원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서포터즈의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일반관중들도 축구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축구장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1.4 원정응원(단관-단체관람)

원정응원은 서포터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과 적지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포팅이다. 또한 서포터즈 조직에 원정팀장이란 직책이 있을 정도로 원정응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잡다한 일이 많다. 지지하고 있는 팀의 원정경기 일정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연간일정으로 잡히기 때문에, 원정팀장은 그 일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한다.

우선 관광버스 준비를 위해 서포터즈 원정응원의 조건과 맞는 관광버스 회사와 한시즌 동안 계약을 하여 원정응원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다. 원정경기 일주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정신청을 받아 경기당일에 집합장소에서 출발한다. 원정경기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출발장소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처음에는 한밭운동장에서만 출발했었는데, 이후 한밭운동장과 월드컵경기장 두 곳에서 출발하다가 원정응원 인원이 줄어들어 현재는 월드컵경기장 앞에서만 출발하고 있다. 원정응원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는 주중이나 일요일 저녁경기일 때이다. 다음날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야 할 사람들에게겐 다소 벅찬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포터즈 대부분은 원정응원을 가서 열심히 서포팅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웬만한 어려움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다.

다음 주가 시험기간이라도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서 단판가시는 분들 우왕좌왕하지 않고, 또 아무 사고없이 쉼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학교 친구들이 미쳤다고 그래요.....중략

힘들게 멀리 원정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날에는 쉼탈하느라 지쳤을텐데 돌아오는 시간 내내 버스 안에서 재미있게 보내요. 휴게소에 들렀다가 선수들이라도 만나면 더욱 반갑고 선수 개개인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힘든 줄도 몰라요...

(정은선-퍼플크루 원정팀장)

또한 선수들에게 있어서 원정경기는 경기장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경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홈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열광적인 서포터즈가 있기에 힘을 낼수 있는 것이다. 서포터즈에는 가족퍼플들도 있는데 이들은 가족여행 다니듯이 원정응원을 다니기도 한다. 전국 각지의 경기장을 찾아다니면서 지역정서를 느끼고 원정경기에서의 서포팅 참여를 통해 서포터즈 내에서의 존재감을 찾아가기도 한다. 서포터즈에 가입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도 원정응원에 같이 참여하면서 오래 전부터 활동해왔던 서포터즈들과 친해질 수 있고 서포터즈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기도 한다.

특히 부천SK가 연고지를 제주로 변경하면서 제주 원정경기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원정경기에 참여하는 서포터즈도 생겨났다. 물론 비용문제 때문에 다른 원정응원처럼 많은 서포터즈가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20-30명의 서포터즈가 제주원정에 참여하곤 한다. 1년에 한 번씩 제주원정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하는 서포터즈가 대다수이다. 이렇듯이 서포터즈의 구단 및 선수에 대한 애착심은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한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제주원정은 보통의 정성을 갖지 않고서는 이러한 열정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응원체계 구축, 응원용품 구입 및 자체 제작, 홈경기 퍼포먼스, 그리고 원정응원 등 서포터즈의 열광적인 현장응원이 거듭 횡수를 더해가면서 그들만의 하위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축구와 함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스포츠 중 야구와 농구, 배구 등에도 서포터즈가 등장하고 있지만, 프로축구의 서포터즈 문화와는 규모나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차이점과, 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응원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축구 서포터즈와는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스포츠 종목의 특성 중 경기진행면에서 축구는 전·후반전 사이 10-15분 정도의 하프타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되지만, 야구나 농구, 배구 등은 이닝과 세트, 작전타임 등에 의해 경기가 중단되는 시간과 빈도가 축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축구의외의 종목에서는 이러한 시간에 치어리더와 전자 음향장비를 동원해서 응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축구 서포터즈는 쉬는 시간 또는 경기가 중단된 때가 아니라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더욱 집중해서 서포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열광적인 현장응원은 일회적인 사건이나 행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화되어 가는 일종의 서포터즈만의 하위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람문화 및 스포츠의 하위문화로서 일반관중과 차별되는 이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한국의 축구문화가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서포터즈 문화를 일종의 진지한 여가[5]로 분석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의 열광적인 현장응원을 여가로 한정짓기에는 부족하고, 서포터즈의 활동이 관람문화의 하위문화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2 소모임 문화

서포터즈 하위문화의 두 번째 영역은 소모임 문화로써, 소모임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퍼플크루는 각각의 소모임을 통해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소위 홈경기 후 뒷풀이 모임, 정모(정기모임), MT, 가을운동회, 소모임별 인터넷 홈페이지, 소모임별 쉼탈존 형성 등 대다수의 서포터즈 활동들이 소모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3.2.1 온라인(on-line) 중심문화

서포터즈의 소모임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의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퍼플크루 연합[18], 딥퍼플[12], 아르크스[13], 퍼플홀릭[17], 트리플P[19], 퍼플 파나틱스[16], 대전시티즌 지지자연대[11]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이 발전하여 인터넷 강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시대가 도래하여 서포터즈의 온라인 문화도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

터넷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을 받아 정회원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야 홈페이지의 각종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모임에 가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었어요. 어떤 행사에 대한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서 출석체크도 하고 맘 편한 친구에게 하소연하듯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종략...

특히 프로축구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는 선수들의 동향에 대한 궁금증으로 여기 저기에서 확보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사랑-딤퍼플 홈페이지 관리자)

퍼플크루연합도 처음에는 인터넷 카페로 시작을 하여 현재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모임은 인터넷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포팅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앞으로 진행해야 할 안전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3.2.2 취향에 맞는 소모임

서포터즈의 소모임은 개인의 성향 및 특성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연령별 모임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모임들이 있고, 또한 개개인의 특별한 취향에 따라 구미에 맞는 소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여러 소모임 중 특히 딤퍼플은 30대 이상의 퍼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대가 함께하는 서포팅을 메인 기치로 내걸고 유럽의 축구문화처럼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축구 경기장을 찾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며 꾸준하면서도 열광적인 서포팅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퍼플크루에는 어떠한 소모임에도 가입하지 않고 나홀로 서포팅을 즐기고 있는 개인 퍼플들도 있다. 어느 조직에 몸담고 있는 것보다 서포터 개인으로서 전체의 서포터즈 입장을 따라가고 서포터즈라는 규범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개인 퍼플로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의 면담 내용이다.

꼭 소모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저는 혼자인 게 편해요.굳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조직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냥 내가 하고싶은 대로 편하게 활동하고 싶어서 소모임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저처럼 개인 퍼플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몇몇 있구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혼자 자라서 그런가봐요. 그래도 섭렵할 때는 전체가 같이 모여서 진행하니까 재밌어요... (정은선 - 퍼플크루 원정팀장)

이렇듯 서포터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소모임을 찾아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위에 기술되었듯이 어느 소모임에도 가입하지 않고 나홀로 열심히 개인 서포터로서 지지하는 팀의 서포팅 활동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소모임에 가입을 했든지 안했든지 경기장을 찾아 열광적인 서포팅에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3.2.3 소모임별 활동내용

서포터즈 각각의 소모임은 경기장에서의 열광적인 서포팅 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인이나 친목모임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축구나 대전시티즌 또는 서포터즈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난 독자적인 활동들이 아님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의 활동내용은 주로 경기 후 뒷풀이 모임, 정모(정기모임), MT, 가을운동회, 소모임별 축구동호인 활동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소모임별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기 후 뒷풀이 모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홈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 근처의 식당에 자리를 잡아 식사와 약간의 음주를 하면서 진행된다. 뒷풀이에서는 특별한 주제보다는 주로 당일 경기에서의 서포팅 활동이나 선수들의 경기력 등을 안주삼아 이야기가 전개되고, 온라인 상에서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접 대면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친분을 확인하며 경기장에서의 열정을 식혀가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뒷풀이에 대한 면담 내용이다.

뒷풀이 때는 별다른 주제없이 썸팅하느라 지쳤던 몸을 약간의 음주로 풀어주고 자주 보지못했던 소모임 회원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보내요. 경기를 이겼으면 더욱 기분 좋게 한 잔씩 하면서 골장면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도 하구요. 또 안보이는 회원이 있으면 왜 안보이는지 확인도 좀 하고, 간만에 나온 회원들은 그동안의 근황에 대해서도 좀 듣구요... 종략

그리고 우리팀 경기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의 경기결과에 대해 여기저기서 확보한 정보를 서로 나누기도 하는 그냥 격식차리지 않고 주절주절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최미진 - 딤퍼플 부회장)

정기모임은 일반 다른 동호회에서는 월1회 정도로 자주 진행되고 있지만, 서포터즈 정모는 경기 때마다 회원들을 만나고 또 홈경기 후에는 뒷풀이 모임도 자주 있다 보니 연 1회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모도 대부분 홈경기 날짜에 맞추어 경기 전까지 축구경기를 진행하거나 가까운 유원지를 찾아 친목을 도모하는 성격의 모임이다.

또한 정기모임은 단순한 친목모임으로 신입회원들을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서포터즈 소모임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그들이 빨리 소모임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반하여 MT는 정보보다는 비중을 두어 1박2일 정도의 시간을 잡아 낮에는 즐겁게 보내고 저녁시간에는 서포터즈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한 개 정도 준비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성격을 띠는 모임이다.

이렇게 소모임별로 진행되는 활동 중에 축구경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는 프로축구 서포터즈에 가입하기 전부터 축구에 많은 관심이 있던 회원들 중심으로 하는 동호인 형식으로 주 1회 정도 별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다. 소모임별로 자체경기를 진행하기도 하고 여건이 맞으면 일반 축구동호인 팀과의 경기도 추천하여 추진하기도 한다. 동호인 활동을 하면서 서포팅하는 팀 선수들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선수들의 몸동작이나 기술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 이렇게 직접 그라운드에서 나가 축구를 하면서 그동안 경기장에서 실수하는 선수들에 대한 질책이나 책망했던 것들을 회상하기도 하고, 회원들과의 친목도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서포팅에 참여하는 퍼플크루의 인원이 많을 때에는 소모임별 서포팅 지역을 별도로 정해놓고 진행해서 동호인들의 경기분석에 치중한 경기관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서포팅에 참여하고 있는 서포터즈의 인원 수가 적을 경우에는 서포터석에 함께 모여서 서포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축구 동호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프로축구 서포터즈가 소모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많은 인원을 지닌 퍼플크루라는 큰 조직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서포터즈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소모임을 찾아서 가입하고, 활동하는 소모임 중심의 조직으로서, 이는 퍼플크루와 같은 대단위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즉 소모임별 임원들과 연합체 본진의 임원들과의 유기적인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포팅도 골대 뒷좌석 중 소모임별로 소위 ‘싫팅존’을 형성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는 열광적인 현장응원, 소모임 문화, 선수단 관례행사 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발전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와 관련하여 강진숙[1]은 팬덤(fandom)을 팬들이 스타나 특정한 텍스트에 대해 갖고 있는 ‘팬 의식’이라 정의하면서, 팬덤은 아비투스적 표현형식이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문화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일준[8]은 “개인이 새로운 세계와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 아비투스에서 집단적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화된다(p. 36)”고 아비투스의 전개방식을 설명하였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이 프로축구 서포터즈에 가입하면서 서포터즈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프로축구 서포터즈 하위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던 아비투스가 프로축구 서포터즈라는 집단의 아비투스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본 연구는 아비투스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는 어떠한 활동과 과정을 거치면서 서포터즈의 아비투스로 발전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도표집과 준거표집을 통해 서포터즈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이며, 서포터즈에서 임원활동을 했던 서포터 중에서 6명의 서포터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가 아비투스로 발전하는 과정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에서는 열광적인 현장응원과 소모임 문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하위문화가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 서포터즈만의 아비투스로 발전되어 일반관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서포터즈내의 구성원은 공통적인 방식으로 서포터즈의 세계를 재현하고, 구성원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분류, 선택, 평가, 행위하는 인지적 및 감성적 지침의 문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ourdieu의 이론적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서포터즈라는 문화적 장의 공간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역동적인 인식의 공간을 공유하며, 일정한 객관화된 의미체계의 이해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오래된 자료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정리와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발전적인 연구를 위해 좀 더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여 관련이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J. S. Kang, A Production and Habitus of Fandom Culture. *Chungang Univ. J. Midia Studies*, 7(1), 91-105, 1998.
- [2] D. M. Shin, *Football Serporters and Red Devil*. Max media, 2005.
- [3] E, K, Yang, S. K. Lee, M. H. Jang, E. Jho, H. I. JOO, S. M. Hong, *Culture and Class: Bourdieu and society of Korea*, 2002.
- [4] M. H. Lee, *A Study on Participatory Process among Keen Supporters for Korean Pro-Baseball Games*. Yonsei Univ. Doctoral Dissertation, 2007.
- [5] Y. J. Lee, *Korean Football Supporters Culture as Serious Reisur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2), 553-563, 2005.
- [6] Y. J. Lee, *Formation process of K-league supporters' identity*. Seoul univ. Doctoral Dissertation, 2006.
- [7] J. Y. Lee, H. K. Kang, D. H. Seol, *Social Consciousness and Regiond Identity in Chungchong Province*. Baksan Books, 2004.
- [8] I. J. Jeong, *Symbolic Power and Culture Reproduction*. Saemulgyeol, 1995.
- [9] Bonnewitz, P., *Premieres lecons sur la sociologie deP. Bourdieu*. 1997.
- [10] Bourdieu, P, *La distiction*, minuit, 1979. J. C. Choi translation, *Distinction : Sociology of Culture and Taste*. Saemulgyeol, 1997.
- [11] <http://www.dcfcfans.com/>
- [12] <http://home.freechal.com/deeppurplecrew>
- [13] <http://cafe.daum.net/KongJuDCFC>
- [14] <http://cafe.daum.net/citizen>
- [15] <http://blog.purplecrew.or.kr/trackback/19>
- [16] <http://cafe.daum.net/PURPLEFANATICS>
- [17] <http://club.cyworld.com/purpleholic1997>
- [18] <http://www.purplecrew.or.kr/>
- [19] <http://club.cyworld.com/PPPurple>

오 병 돈(Byoung-Don Oh)

[정회원]



- 2002년 2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 석사
- 2008년 8월 : 충남대학교 이학 박사
- 2013년 8월 ~ 현재 : 공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스포츠사회학, 축구

유 영 설(Young-Seol Yu)

[정회원]



- 2003년 8월 : 강원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11년 2월 : 충남대학교 이학 박사
- 2013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스포츠경영/행정, 학교경영, 육상